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문화홍보국장

| 우물가의 두 사람

한낮. 유서 깊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목마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과 ‘물을 길으러’ 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물 한 모금 청하는 예수님께 여인은 꽤나 통명스럽습니다.

사실 태양이 작열하는 중동 지역의 한낮은 물 길으러 가기에 좋은 때가 아닙니다. 일부러 사람이 없을 때를 골라 우물에 간 여인에겐 사연이 있습니다. 그녀에겐 다섯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실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길을 몰라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다섯 남편을 만났지만 여전히 한낮에 물을 길으러 나서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물’이란 말씀에 이제까지 통명스럽던 태도에서 돌변하여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야무지게 청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이 남자 저 남자 옮겨다니며 행복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되고, 수군대는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우물가를 찾지 않아도 되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언자적 면모를 본 여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결국 자

신의 갈증을 가시게 할 분은 하느님뿐이란 걸 여인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인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설파하시는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윽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돌아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는 여인의 흥분과 설렘은 “그물을 버리고”(마태 4.20)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어부에게 그물이 필요 없듯, ‘영원한 생명의 물’을 얻은 여인도 물동이기가 필요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달려간 여인은 외쳤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고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유서 깊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낮에 만났던 두 사람은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인은 내면에서 샘솟는 ‘생수’를 얻었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고을 사람들의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까요?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어디서 물을 구하려 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큰 위기에 맞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생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요한 4.34 참조) 사람입니다.



위례성모승천성당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00 에스비트램스퀘어 4층

위례성모승천성당은 2017년 2월 문정동성당 위례공소로 시작하여 2017년 8월 문정동성당에서 분가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4월 신자 투표를 거쳐 지하 4층, 지상 4층의 성전 설계도가 확정되었으며, 2019년 3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성전 봉헌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지생태수변공원 안에 건축되는 성전의 외관은 배 모양이며 흰색 벽돌, 하얀 종탑과 함께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하느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함을 갖춘 성전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